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30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공보담당관	담 당 자	• 신문보도팀장 박성순 ☎440-3065 • 담당자 이풍희 ☎440-307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전 세계 기자들 만나 인천 도시경쟁력 알려
- 2023 세계기자대회 참석, 환영사 통해 인천의 발전상과 가치 홍보 -

인천광역시는 28일 유정복 시장이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기자대회 인천방문 행사’에서, 49개국 55명의 세계 언론인들을 만나 인천의 발전상과 가치를 홍보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계기자대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전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고 언론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세계기자대회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25일 서울에서 개막식과 컨퍼런스를 열고, 수원·부산에 이어 인천에서의 취재 일정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28일 인천을 방문한 전세계 기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G타워, 송도센트럴파크와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돌아보며, 인천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며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자 국제도시로서 독자적 위상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반도체, UAM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생태계를 인천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기업들이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활동하기 좋은 도시, 투자가치가 높은 도시로 손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의 매력과 경쟁력을 전세계인들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사이트의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